



유플닷컴, 환갑인 저한테도 편하면 정말 편한 거 아닐까요?

올해로 61세, 환갑에 접어든 나이입니다.

제 나이쯤 되면 폰 하나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.

괜찮은 매장을 찾는 것도,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.

우연히, 유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폰을 구매할 수 있는 걸 알게 됐어요.

택배도 개통도 빠르고, 24시간 365일 상담 서비스까지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.

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상담을 진행했었는데, 아직도 상담사분의 친절함이 생생해요.

제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실수에도, 목소리에 짜증 한번 섞지 않아 주셨어요.

설명은 또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.. 이 인터뷰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어요.

그때 참 고마웠어요.

유플러스닷컴 24365 가입상담 이용 고객 **신정식**님

이런 생각, 신정식님의
**WHY
NOT?**



QR코드 스캔하고 신정식님의
와이낫 스토리 더 보러 가기